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범죄양상과 위험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f on the Crime Patterns and Risk of Climate Gentrification

오세연*

Sei Youen Oh*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Semyung University, Jecheon,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Sei Youen Oh, s092724@naver.com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criminal patterns and risks of conflicts caused by inequality such as weakening regional ties and social exclusion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present basic policy data to solve them. **Method:** This study was mainly conducted through analysis of contents and cases through the use of media information such as the Internet and newspapers, and some literature research. **Result:** The crim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climate gentrification are as follows. First, rising sea levels caused by climate change will temporarily increase crimes related to real estate speculation. Second, social exclusion due to public service and environmental inequality will intensify, leading to terrorist crimes such as riots and hate crimes. Third, due to the weakening of regional ties, young people in poverty in the region will participate in organized violence crimes such as drugs and gangs or become crime victims. **Conclu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licy countermeasures through cooperation with institution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xplore ESG policy measures in police activities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future.

Keywords: Climate Change, Gentrification, Rising Sea Levels, Regional Ties, Crime Patterns, Housing Costs

요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발생하는 지역적 유대관계의 약화와 구성원 간 사회적 배제현상 등의 불평등이 가져올 범죄양상과 위험성을 예측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최근에 들어서야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료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인터넷, 신문 등 언론정보 활용을 통한 내용의 분석과 사례 그리고 일부 문헌조사를 통해 주로 이루어 졌다. **연구결과:**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범죄양상과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일시적으로나마 부동산 투기관련 범죄 등을 증가시킬 것이다. 둘째,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환경적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배제현상이 심화되어 폭동, 및 혐오범죄 등의 테러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지역유대관계의 약화로 인해 지역의 빈곤층 젊은이들이 마약과 갱단 등 조직폭력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피해자로 전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론:** 따라서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범죄양상과 위험성을 예측하여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단계적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찰기관에서도 향후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환경요소를 고려한 경찰활동에서의 ESG 정책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기후변화, 젠트리피케이션, 해수면상승, 지역유대관계, 범죄양상, 주거비

Received | 22 July, 2024

Revised | 9 August, 2024

Accepted | 16 August, 2024

OPEN ACCES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서론

국내·외 언론에서 몇 년전부터 환경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단어가 자주 함께 등장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도심지역에서 저소득층이 이탈하고 고소득층이 이들을 대체하는 현상으로 낙후한 구도심에 고급 주거 지역이나 상권이 조성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 원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¹⁾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그 원인을 기후의 변화에서 찾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일부 저지대 지역이 침수하게 되고 저지대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 주거지 이동현상을 야기시키게 된다. 주거지의 이동에 있어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적게 드는 고지대에 살던 저소득층은 기후변화로 인해 침수현상이 발생하는 저지대로 이동하게 되고 역으로 중심부의 고가 주거지에 살던 고소득층은 자연스레 침수현상이 덜한 고지대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주거비용등과 관련된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해체 현상에 따른 다양한 범죄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침수현상이 발생하는 저지대로 이동한 경제적 빈곤층은 사회복지 및 치안 등에 관한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균형이 초래 될 것이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각종 범죄, 사회적 갈등, 폭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단순하게 물가상승, 주거비용증가, 환경오염 등 어느 한 가지 요소에만 관련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다양한 요소와 관련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 일부 언급한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하면 부동산과 같은 주거비용에 영향을 주고, 주거환경의 변화는 경제적 비용의 차이가 있는 계층에 다시 영향을 주게 된다. 경제적으로 하위계층 있는 사람들은 기후환경의 변화에 의해 의·식·주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하위계층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보다 범죄를 비롯한 특정범죄등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결국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치안등 공공인프라가 개선된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차별적으로 범죄의 원인이 되는 요인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은 주거지 이동에 따른 기존 및 이동지역의 사회유대관계를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계층 간의 폭동, 갈등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적인 사회변화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기존지역의 주거지 이동 및 붕괴로 인한 지역적 유대관계의 약화와 계층 간 사회적 배제현상 등의 불평등으로 인해 오는 갈등 등이 가져올 범죄양상과 위험성을 예측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최근에 들어서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범죄양상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사례와 자료들의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 신문 등 언론정보 활용을 통한 내용의 분석과 사례 그리고 일부 문헌조사를 통해 주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으로 인한 범죄양상과 특성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 가능 될 범죄의 위험성을 시론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9/2018082903950.html.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고찰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은 미디어에 의해 대중화되었고, 최근에 몇몇 학자들에 의해 기후변화가 지역 구성원의 계층에 따른 주거환경과 지역의 경제구조 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연구하는데 있어 새로운 매개변수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Keenan et al., 2018). 즉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 소비자의 투자, 정착패턴 등을 선택하고 주도할 수 있는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되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은 주거비용 문제등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홍수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지대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변화를 의미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예술 젠트리피케이션, 상업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Im et al., 2020).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과 범죄발생 및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인구조사통계, 사회조사데이터, 지역별 범죄변화 추이 등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후의 변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을 별도로 놓고 보거나 아니면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보고 조사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기후 젠트리피케이션만을 연구한 자료가 국내에서는 거의 없으며, 국외에서도 일부 중요성을 인지하고 몇 년 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향후 범죄발생과 변화에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만큼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외의 선행연구 대부분 기후변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을 범죄발생에 영향을 주는 각각의 요인으로 보고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젠트리피케이션과 범죄발생 및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인구조사 통계와 사회조사 데이터, 지역별 범죄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주로 연구가 수행되어졌다. 그 결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인구유입은 외부의 접촉을 증가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자원이 강한 초기 지역에서는 범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와 반대인 지역에서는 범죄증가 현상이 오히려 나타났다. Kim(2016)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물리적 혼잡성과 같은 치안문제로 주거만족도가 하락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Im et al.(2020)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지역공동체를 약화시켜 지역구성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을 변화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역사회의 치안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해외연구를 통해서도 젠트리피케이션과 사회해체, 치안문제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Trager et al., 2014; Konkel et al., 2019; Hipp et al., 2020). 그러나 아쉽게도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범죄발생 및 변화 등에 대한 관심은 환경문제의 심각화 등으로 최근에 들어서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 국내에서의 연구는 아직 없으며, 다만 외국에서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몇 해 전부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Keenan et al.(2018)은 플로리다 남동부 해변지역인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Miam-Dada County)지역을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하여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가의 주거지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안가 고급주택에 거주하던 부유층이 고지대로 이동해 기존 주민들이 밀려나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결국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 직접적으로 범죄발생과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아니지만 이러한 연구결과가 지역의 치안문제와 범죄에 향후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도 기후 젠트리피케이션과 범죄, 치안문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범죄발생 및 위험성에 관한 논의

대내·외 흐름을 살펴보면, 이미 많은 국가에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경찰 등을 비롯하여 많은 공공기관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전략 도입 등 환경분야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Oh, 2023). 특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내 환경적 불균형, 계층 및 구성원간의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 될 수 있다. 해수면 상승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받는 일부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약화 시키게 되고, 결국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갈등 심화, 구성원 간의 신뢰의 훼손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범죄, 치안, 갈등 등의 다양한 사회영역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기존의 지역환경 변화에 따라 치안변화의 양상도 변화하게 된다.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범죄가 어떠한 원인과 요인 등으로 범죄가 발생하는지와 그로 인한 범죄양상 및 그 위험성에 대해 예측해 보고, 이를 통한 치안안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헌조사와 언론정보 활용 등을 비롯하여 각국의 지역사회해체 등으로 야기되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치안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폭동, 갈등 등의 주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을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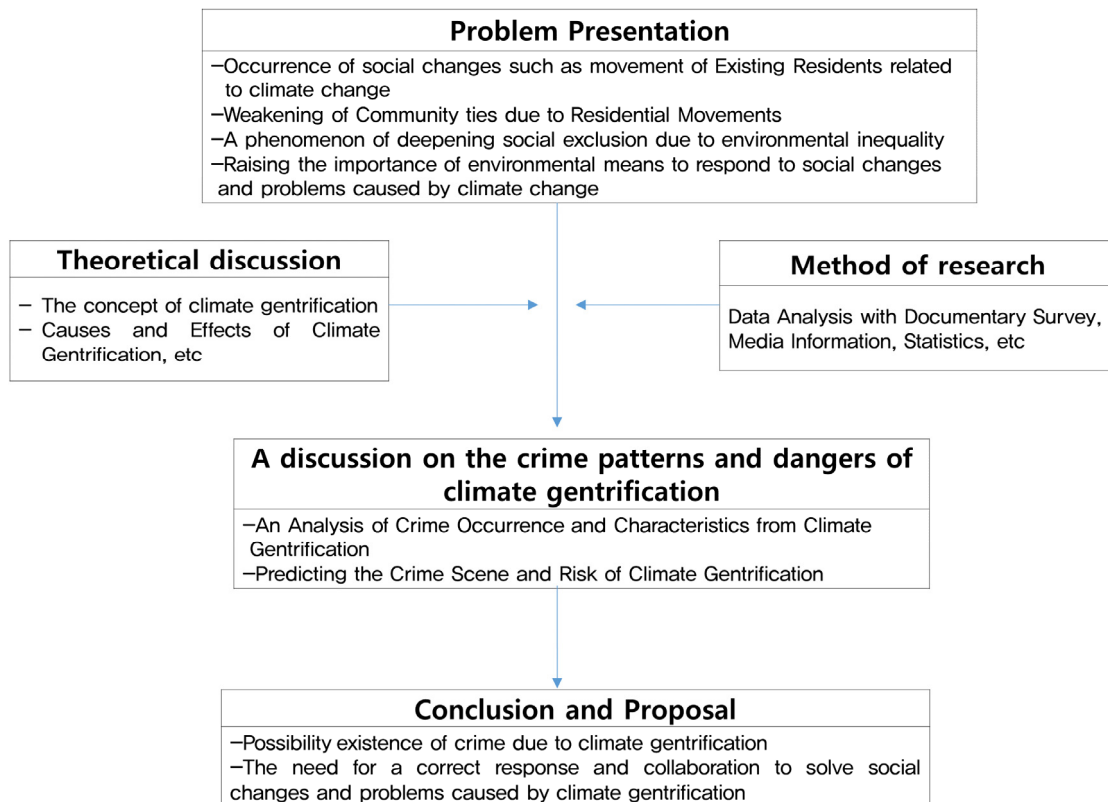


Fig. 1.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paper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범죄양상 및 위험가능성 분석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계층이 우위에 있는 고소득자들은 해안가의 저지대 주거지에서 해수면상승에 영향을 덜 받게 되는 비침수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반면 원래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지 않은 고지대에 거주하고 있었던 저소득층은 주거비용이 낮은 침수지역인 저지대로 이동하는 주거지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부의 이동이 변화되고 이에 따라 인구의 주거지와 산업시설 등도 변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지대나 해수면 상승지역이 아닌 곳에 고소득층의 인구가 유입되고, 기존 지역구성원이 그 지역사회에서 밀려나거나 일부 혼재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일부지역에 특정 범죄가 발생할 위험 가능성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범죄발생 가능성과 범죄발생시 범죄유형 및 특성에 대한 내용들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Fig.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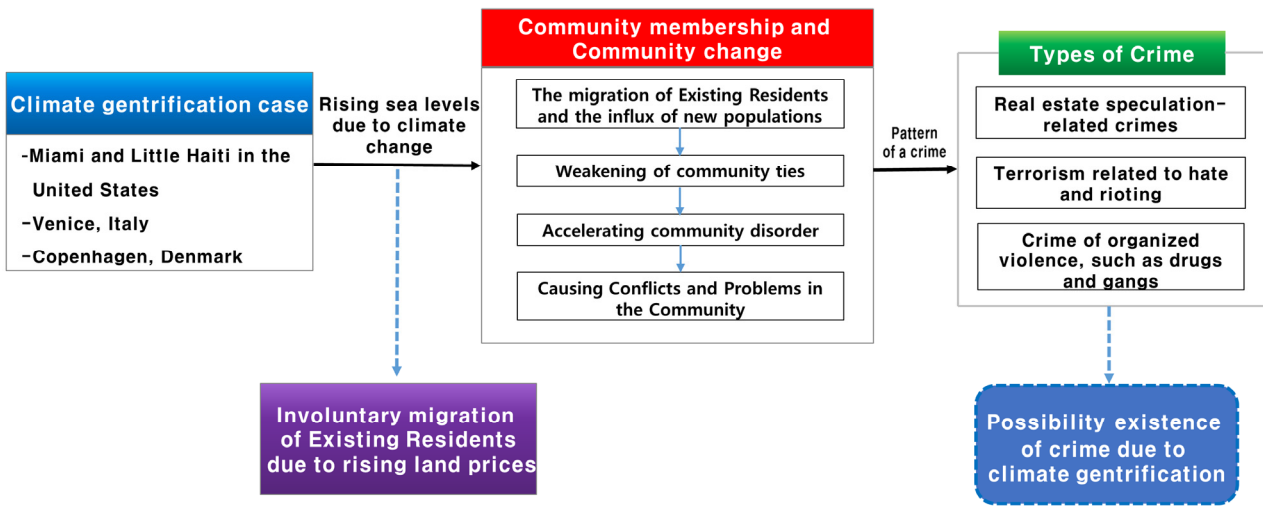


Fig. 2. Climate gentrification-causing crime and possible risk processes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지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가구임대료, 주택보험료, 교통비등을 증가시켜 비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부동산 투기관련 범죄 등을 증가시킬 것이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비치(Miami Beach)와 리틀 하이티(Little Haiti) 지역의 비교연구에서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하여 2045년까지 마이애미 비치의 1만 2000가구가 해수면 아래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마이애미 비치보다 고도가 높아 침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티(Haiti)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하이티(Haiti)지역의 월세가 13%증가하였고, 현재 리틀 하이티(Little Haiti) 원거주자는 치솟는 주택, 가구임대료를 내지 못해 거주지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Venice)의 경우에도 마이애미와 마찬가지로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피해 위험이 커지면서 주택보험료, 주택 유지비, 교통비 등 전반적인 생활비를 감당 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있는 주민만 남고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도시를 떠나고 있다²⁾.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내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부동산 시세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어 해수면이 오르면

2)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9/2018082903950.html

향후 한국판 리틀 하이티(Little Haiti) 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세계기후 과학자 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온도가 1.5도 상승하였을 때 침수지역의 시물레이션결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서해안 쪽의 침수 가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2050년 기준 인천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일부가 물에 잠기게 되며, 서울에서도 한강변을 따라 양천구 목동, 강서구 마곡동,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와 올림픽대로 대부분 구간이 침수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³⁾. 이러한 연구결과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발생한다면 현재 주거지는 서울의 강남권에서 상대적으로 침수가 덜한 강북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향후에는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부동산 투기 관련 등의 범죄가 증가하게 될 위험가능성이 높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한 저지대 침수지역으로의 비자발적 원주민 이주는 이주된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등의 이용과 관련되어진 환경적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배제현상이 심화되어 폭동, 및 혐오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일랜드 더블린(Dublin) 지역의 경우 이민자와 난민이 몰리면서 이 지역의 집값은 천정부지로(투룸의 경우 월세 2000유로로 약 한화 290만원) 올랐고, 원주민들이 교외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면서 반이민폭동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 지역의 치안이 대폭 강화되었다⁴⁾. 이러한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를 강타하자, 중·저소득층 비백인 주민 상당수가 무너진 집을 두고 떠났다. 이후 뉴올리언스 고지대의 백인과 흑인 인구 비율은 2000년 35% 대 58%에서 2019년 69% 대 21%로 20년 만에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⁵⁾. 즉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 사회사회의 구성원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거나, 침수지역으로 이주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회적 배제현상이 장기적으로 발생되게 된다면 사회·환경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지역적 폭동과 계층 및 인종에 대한 혐오 등의 범죄로 발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FT (Financial Times) 기사에 의하면 런던의 Hackney, Haringey, Camden, Waltham Forest 등은 집값이 크게 증가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을 떠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층 젊은이들은 그들과 지역적으로 연결된 커뮤니티가 줄어들고, 점점 지지층이 사라지게 되면서 마약시장, 갱단 등 범죄행위도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⁶⁾. 런던의 살인, 폭력 등의 증가 원인은 비단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요인으로만 보기 어렵지만 주거비용등의 상승은 저소득층의 원주민에게 있어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지역사회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새로운 인구유입은 원래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던 지역 공동체의 응집성 등을 약화시켜 빈곤층 젊은이들이 마약과 조직폭력 등의 범죄에 합류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은 지가 상승으로 가구임대료, 주택보험료, 교통비등을 증가시켜 원주민의 비자발적인 이주를 가속화 시키게 된다. 이는 그 지역사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역적 응집력과 효율성을 약화 시키고 무질서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빈곤 젊은 층에게 마약과 갱단 등의 조직폭력 범죄에 가해자로서 합류하게 되거나 피해자로 범죄 위험성에 더욱 노출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해수면상승으로 인하여 저침수 지역으로 유동인구의 유입 및 혼재가 이루어지면서 지역구성원 계층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갈등과 범죄문제 등이 야기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지역계층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3)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202013>

4)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07O45AY>

5)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10140600081/>

6) <https://www.ft.com/content/ace1dbe0-7ece-11e8-8e67-1e1a0846c475>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지가상승과 주거비 부담 등은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를 통해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약화하게 되고, 새로운 인구의 유입과 원주민의 혼재 속에서 무질서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이를 수반한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관련 범죄, 공공 서비스등의 불균형으로 인한 인종 및 계층 간의 혐오와 폭동 등의 테러범죄, 지역공동체 응집성의 약화로 기인한 빈곤 젊은 층의 마약 및 갱단 등 조직폭력 범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가능성이 존재한다.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마이애미와 하이티,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의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사례를 통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과 기후변화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각종 문헌과 통계자료를 통해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다양한 문제점 들 중 범죄에 대한 발생 위험 가능성과 이로 인한 범죄유형과 및 특성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지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가구임대료, 주택보험료, 교통비등을 증가시켜 비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부동산 투기관련 범죄 등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은 이미 미국과 이탈리아, 덴마크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한 비자발적 원주민 이주와 지역사회에 새로운 인구의 유입은 갈등과 함께 환경적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배제현상이 심화되어 폭동, 및 혐오범죄 등 테러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지역구성원 계층의 변화로 인하여 지역적 응집력과 효율성을 약화 되면서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빈곤 젊은 층은 마약과 갱단 등의 조직폭력 범죄에 합류하거나 피해자로 노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발생 등은 더 이상 어느 한 국가에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며, 향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범죄발생 양상과 위험가능성의 분석과 예측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어 경찰기관 또한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환경요소를 고려한 경찰활동에서의 ESG 정책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국내·외의 많은 국가에서 환경문제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 등에 대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있어 일부 지역에서의 갈등구조와 치안발생의 심화, 계층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문제의 위협 등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치안안전에 대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연구에서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범죄발생 및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거의 없고, 외국의 연구에서도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사례 또한 극소수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인한 범죄발생 및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안안전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Acknowledgement

본 논문은 2024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References

- [1] Hipp, J.R., Willaiams, S.A. (2020). "Advances in spatial criminology: The spatial scale of crime." *Annual Review of Criminology*, Vol. 3, pp. 75-95.
- [2] Im, Y.J., Han, C.H. (2020). "Mediating effects of regional disorganiz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trification and fear of crime."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Vol. 6, No. 1, pp. 165-186.
- [3] Kim, Y.H. (2016). *Impact of Gentrification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Residents in Residential Area*.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 [4] Keenan, J.M., Keenan, J.M., Hill, T., Gumber, A. (2018). (2018). "Climate gentrification: From theory to empiricism in Miami-Dade County, Florida."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Vol. 13, No. 5, pp. 1-11.
- [5] Konkel, R.H., Hafemeister, A.J., Daigle, L.E. (2019). "The effects of risky places, motivated offenders, and social disorganization on sexual victimization: a microgeographic- and neighborhood-level examin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36, No. 17-18, pp. 1-26.
- [6] Oh, S.Y. (2023). "An Exploratory Study of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ESG by the Polic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ety and Safety Culture*, Vol. 6, No. 4, pp. 157-167.
- [7] Trager, G.A., Kubrin, C.E. (2014). *Complicating the Immigration-Crime Nexus: Theorizing the Role of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 and Crime*. The Oxford Handbook of Gender, Sex, and Crime, Oxford University Press, UK, pp. 527-54.
- [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9/2018082903950.html
- [9]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202013>
- [10]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07O45AY>
- [11]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10140600081/>
- [12] <https://www.ft.com/content/ace1dbe0-7ece-11e8-8e67-1e1a0846c475>